

보도일시 (인터넷) 2023. 7. 11.(화) 11:00,
(지면) 2023. 7. 12.(수) 조간

배포 2023. 7. 11.(화) 06:00

낙동강 하구 무인도서에서 방치된 쓰레기 본격 수거한다

- 10월 말까지 진우도 등 7개 섬에 방치된 쓰레기 111톤 수거 계획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낙동강하구에 있는 진우도 등 7개 섬에 대한 쓰레기 수거사업을 이번 달 중순부터 본격 시작하여, 10월 말까지 111톤의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다.

낙동강하구에 있는 이 섬들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철새들의 휴식·산란 장소로 이용되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나, 낙동강으로부터 바다로 유입되는 물질의 퇴적지여서 쓰레기도 지속적으로 쌓여 방치되고 있었다. 관할 지자체가 청소를 하고 있으나 접근이 어려운 구역이 많고, 폐선박, 폐컨테이너 등 대형폐기물이 많아 대대적인 정화사업이 필요하다는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작년 말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2차례에 걸쳐 관계기관 및 어촌계, 시민단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생태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방치된 쓰레기의 수거방법과 수거시기를 정하였다. 이후, 이번 달부터 8월까지 폐선박 등 대형폐기물 등에 대한 대집행공고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장비와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10월까지 수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사업 완료 후에도 섬들이 계속해서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귀중한 자연환경자산인 무인도서를 철새와 시민들에게 깨끗이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	책임자	과 장	류선형 (044-200-5300)
		담당자	사무관	신영락 (044-200-5301)

참고 1

사업 추진경과 및 개요

□ 그간 추진 경과

- 관계기관(해양보전과, 부산청, 부산시, 해양환경공단) 합동 현장점검('22.11.30)
-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위한 실태조사(실시설계, 4.10~6.19)
- 관계기관 및 어촌계, 환경단체 대상 설명회(4.26, 6.22)

□ 사업개요

- (물량/수거사업비) 111톤 (폐선, 폐컨테이너, 폐그물, 생활쓰레기 등) / 470백만원

도서명	면적(m²)	쓰레기량(톤)	
대마등도	329,128	47.0	
장자도(호룡등, 옥림등)	463,197	2.8	
신자도	748,545	12.0	
진우도	982,045	34.0	
맹금머리도(맹금머리등)	139,636	5.1	
백합등	410,310	1.6	
도요등(철새등)	349,124	8.6	
합계	3,421,985	111.1	

- (수거방법) 대형폐기물 위주 수거하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지자체에서 수거가 어려운 대마등의 경우 소형폐기물까지 전량 수거
- (사업시기) 7월 ~ 10월(조류 번식기 고려)
- (수거방법) 장비투입이 가능한 도서의 경우 장비(굴삭기, 경운기 등)를 투입하여 수거하고, 그 외 전문인력을 통하여 수거

□ 향후 계획

- 방치쓰레기에 대한 대집행공고 등 행정처리(부산청,부산시, 7~8월)
- 사업발주(7월중) 및 수거실시(8~10월)

참고 2	낙동강 하구 무인도서 폐기물 사진
-------------	---------------------------



진우도(트럭 활어통)



진우도(폐선)



진우도(폐컨테이너)



진우도(FRP수조)



진우도(폐선)



대마등(폐선)



대마등(폐컨테이너, 가구)



신자도(폐선)